

아동문학

2006년
여름호

(루게 제 115호)



아동문학

ER TONG WEN XUE

2006년 여름호 루게 115호

E-mail: admh123@hanmail.net.



소설

- 001/ 네온등사건 -김선파
- 033/ 황색다이아몬드의 비밀 -바이스텐
- 120/ 7딸라의 꿈 -마리 루 크린레
- 134/ 산딸기 -김 규



김선파

차 례

편집위원회

주 임: 류연산

부 주 임: 김현순(상무)

편집위원: 김득만

김만식

리태학

한석운

최문섭

허호범

도서질감독전화

0433-2902102

0433-2902135

편집부주소

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동화

- 073/ 평화새 -박일호
- 014/ 삼진날에 돌아와보니 -리영호
- 143/ 여자애들의 도시에
기여든 도적 -팽 의
- 171/ 너는 살아야 한다 -정문준
- 185/ 개구리동네의 풍파 -김계옥
- 189/ 왕이 되려던 여우 -위 에프티이우



박일호

동시

- 052/ 김득만자선대표동요12수
- 084/ 삼안골 병아리(외 2수) -한석운
- 089/ 염색가(외 2수) -박흥률
- 091/ 뜨개질(외 1수) -리금덕
- 093/ 까마귀(외 2수) -박호일
- 096/ 별 많은 밤(외 3수) -김창규



한석운



아동문학

ER TONG WEN XUE

2006년 여름호 루게 115호

E-mail: admh123@hanmail.net.



옛날옛적에

066/ 고양이, 수탉과
개 이야기

-리룡득

127/ 호산

-한산치

207/ 금앵무새

-방글라데슈

기획조명

142/ 림철동시 한 바구니

151/ 단평 · 술술 풍겨나는
동심의 향기

-김현순



리룡득



김철

노래

225/ 눈꽃

작사: 최문섭

작곡: 최창규

소식

223/ 《열린 아동문학, 디지털의 지평을 열며》 좌담모임

차례

주 필: 류연산

부 주 필: 김현순(상무)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김흥화

기술설계: 정려란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 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230 / 7印张: 1/32开本 字数: 25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45-6 / I 93 (民文)

版次: 2006年 6月 第1版 2005年 6月 第1次印刷

印数: 1-1070 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수필

- 156/ 어머니마음 -김일
- 161/ 우리는 뭘 모르고 삼니까 -전춘식
- 165/ 이름을 불러주자 -박동하
- 168/ 꽃바람갈채 -강 려



김일



재담

- 059/ 《보약》 -김 영

우화

- 023/ 참새잡는 두 형제 -김세형
- 178/ 사자의 뒀(외 2편) -프랑스
- 182/ 봉변당한 다람쥐 -심각한



김세형

명인 이야기

- 025/ 발자끄 -김천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儿童文学. 2006年夏季版 / 李成权主编. —1版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3

ISBN 7-80698-645-6

I . 儿... II . 李... III .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世界-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 I18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20802号

· 소 설 ·

네온등사건

김선파



1

점심시간이 되자 동수는 축구공을 안고 립해학교 교문을 나섰다. 얼굴이 벌에 타서 감실감실한데다가 머리도 강굴강굴 고수머리여서 여간만해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동수는 교복—대산학교축구팀의 복장인 파란 적삼에 빨간 운동팬티를 입었다. 잔등에는 노란 8자가 유표하게 빛났다. 동수는 오른발, 왼발 쿵당쿵당 앙감질하며 달려간다.

동수는 새로 이사온 아파트구역으로 통하는 작은 골목에

접어들었다. 저앞 리발관집의 빨강고 노랑고 파란 네온등이 뱅글뱅글 도는것이 유난히 눈을 끌었다. 저 리발관집 바로 앞 새 아파트 2층에 동수네가 살고 있다.

지금 동수는 흥김에 길가의 작은 돌맹이를 《땅》하고 걷어찼다. 그런데 웬걸? 그 돌맹이가 《씹》하니 날아가더니 그만 리발관집 네온등을 《찰라당》깨고 말았다.

《아차!》

동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폭 박혔다. 그때 《누구얏!》하는 아츠러운 소리가 동수의 귀청을 아프게 때렸다. 동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여 자기네 현관문 안으로 뛰여 들어갔다.

2

집에 질린 동수는 현관 문을 빠금히 열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두팔을 붙썬 걷어 붙인 리발관집 아줌마가 히힃거리며 나타났다.

《어느 놈이야, 당장 못나와?》

리발관집 아줌마는 팔을 휘둘러대며 악청높이 소리쳤다 누구라도 손에 잡히는대로 붙잡자는 그런 기세였다.

바로 그때 어떤 흰 운동복을 입은 형님이 한 손에 책을 맡아 쥐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리발관집 아줌마는 교통경찰처럼 한 팔을 번쩍 쳐들더니 다짜고짜 그 형님의 앞길을 가로 막아나섰다.

《서지 못해?》

《왜서요?》

《흥, 모르는체하지 마!》

《뭘 어째서요?》

형님은 리발관집 아줌마의 손을 탁 뿌리치며 당당하게 나섰다.

《내가 우리 집 네온등을 갓지?》

《뭐라구요? 생사람 잡겠네!》

《그래, 여기 너를 내놓고 또 누가 있어?》

《근거두 없이 왜 이 야단이에요?》

《근거? 그래 왜 뛰는거여? 뛰는게 근거지!》

너무나 어이없는 형님은 리발관집 아줌마를 매섭게 쏘아 보며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입술을 깨물고 바들바들 떨던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다.

《아줌마! 법을 알거나 알아요? 법제관님은 영 빵점이구만요! 함부로 남한테 루명을 들썩우면 무함죄라는걸 몰라요?》

《뭘 어찌구 어째? 난 그런거 모른다. 38원이나 하는 네온등을 깨구두 그래 오리발 내밀어?》

《오리발? 이거 정말 답답해 죽겠네.》

《뭐가 답답해?》

《하,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네...》

《너 그래 이름은 머야?》

《전정철이라구 함다. 이만 하면 됐죠?》

정철이라는 형님은 리발관집 아줌마를 밀치고 가던 길을

가려고 서둘렀다.

《가긴 어디 가? 못 가!》

이 모든 것을 말뚱말뚱 지켜 보던 동수는 씹하니 층계를 따라 2층에 올라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선 동수는 신발기 바쁘게 한달음에 북쪽 유리창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지금 리발관집 아줌마는 정철이라는 형님의 팔을 틀어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네온등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성화다.

동수는 숨이 꺾 막히었다. 얼굴이 막 뜨거워 났다. 바로 이러한 때 자기가 선뜻 나서서 네온등을 뺐다고 승인하고 애매한 저 형님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풀어 주자면 돈이 필요하다. 뭐 38원이라고 했지?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

이 집도 아빠가 한국에 가서 번 돈으로 산 집이다.

그런데 아빠는 한국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그만 높은 데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엄마는 시름



시름 앓고있다. 그래도 엄마는 그런 몸으로 남의 집 아이를 보고있다. 하여 얼마 안되는 보모비로 사는 동수네는 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그러니 어디서 돈이 나라!

그러나 지금은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엄마, 돈 40원 없어요?》

《불시로 돈은 해서 머 할려구?》

《글쎄...》

《여기 전기세를 내자구 한 돈이 있기는 있다만...》

동수는 설사 돈을 얻는다 하여도 근심이 태산같았다. 저 무서운 아줌마한테 잡히는 날이면 어떻게 될가? 옥두 먹고 맞아두 대고... 아, 그걸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 났다. 동수는 두 눈을 꼬옥 감고 말았다...

3

오늘은 토요일이여서 동수는 아침 늦게 일어났다. 그러나 매일 축구연습하는 일과는 빼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동수는 축구공을 안고 복도에 나섰다.

그런데 이게 누구야? 바로 그 정철이라는 형님이 이사짐을 들고 층계로 올라오지 않겠는가? 오늘 3층집에 이사 온다더니 면바로 정철형님네가 이사 오는것이였다.

《이사와요?》

《그래, 임마!》

《우린 2층...》

《우린 3층이야...》

정철형님은 웬일인지 원눈을 찡끔하여 보였다. 동수는 층계를 따라 내려 오며 생각했다.

면목도 모르는 자기를 보고 《임마》라고 하는것은 무슨뜻일가? 정철형님이 동수가 네온등을 깬걸 분명 본것 같았다. 그러기에 네온등은 내가 깨고 욕은 내가 먹는다는 그런 불만의 뜻이 아닐가?

원눈을 찡끔하는건 또 무슨 뜻일가? 그런 그래도 자기가 감싸줄테니 안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가?

도리머리를 하던 동수는 축구공을 팡팡 차면서 밖으로 내달려 왔다. 요즘 들어 동소는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무어나 꼬리를 물고 따라서는 생각이 무섭기만 하였다. 그래, 자꾸 생각해선 뭘 해? 머리만 아프게!

동수는 아파트 벽에 축구공을 뽕뽕 건어차며 땀을 뚝뚝 떨구었다. 오라지 않으면 《교장컵》축구경기가 있는데 중앙공격수로서 어디 한번 멋진 꼴을 넣어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것이다.

연변팀의 한다 하는 공격수가 되려는 동수의 꿈은 그 누구도 모른다. 축구선수가 되려면 돈도 꽤나 든다. 나이는 어리지만 남보다 일찍 셈이 든 동수는 자기 집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와도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는중이다.

동수가 훈련을 마치고 땀을 뚝뚝 떨구며 층계를 따라 올라가는데 리발관집 아줌마의 악청 높은 목소리가 3층에서 찌렁찌

령 들려왔다.

《그래 네온등값은 죽어두 안 내겠단 말이지?》

《예! 깨지두 앓았는데 무슨 멍청이 돼서 내가 돈 내겠어요?》

《그래, 너 어느 학교랬지?》

《예, 림해학교 초중3학년1반임다. 어쩔텐니까?》

《내 너네 학교 찾아 가잖나 두구 봐!》

《힉, 실컷 찾아가 보세요!》

여기까지 귀여겨 듣던 동수는 리발관집 아줌마가 금방 내려 올라 무서워 얼른 출입문을 떼고 집에 들어섰다. 문제는 자기 때문에 지금 정철형님이 골탕 먹고있다.

《엄마, 이럴 때 어떡하면 좋아요?》

《뭘 말이니?》

《저...》

《애두 통 말을 해야 알거 아니야?》

《예... 그런데 엄마... 사실은... 저...》

동수는 혀끝까지 나오던 말을 흘랑 집어삼키고말았다. 아 빠 없이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랑하는 엄마를 더는 놀래울수가 없었던것이다.

4

일요일도 지나고 월요일도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다. 담임 선생이 들어오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전교 통일로 이 시간에 각 학급에서 통보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학교 중학반 3학년 1반 정철학생이...》

동수는 흠칫 놀라며 귀를 도사렸다.

(정철형님이 뭐라고?)



동수의 귀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철형님이 리발관집 네온등을 켜했다는 사실, 깨고도 자기 잘못을 승인할 대신 리발관집 아줌마를 욕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학교 제

도에 따라 정철형님이 네온등 값 38원을 배상하고 리발관집 아줌마의 정신손해비로 2백원을 배상...

(뭐, 200원?)

동수는 된 방망이에 한매 호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머리가 땡땡했다. 선생님의 말소리는 그냥 들어왔다. 학교에서 정철형님에게 경고처분을 준단다. 경고처분을 받으면 정철형님은 고중하기두 어렵단다...

동수는 그 자리에 더는 그냥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 동수는 엉거주춤 일어나 배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선생님한테서 말미를 얻었다. 동수는 배를 끌어 안고 어떻게 교실 문밖으로 뛰쳐 나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집으로 달려왔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도 너무하다. 어떻게 리발관집 아줌마 말만 듣고 정철형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을가? 그리구 왜서 나는 찾지 않고? 꽤심한 리발관집 아줌마!)

동수는 돈을 내고서라도 정철형님을 도와 나서기로 작심했다. 동수는 책상우의 돼지저금통을 내려서 결상에 《탕!》하고 깼다. 각전동이랑 종이돈이랑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다급히 세여 보니 모두 18원30전 밖에 안되었다. 이것도 동수가 하루 2원씩 하는 용돈을 아끼고 모은 돈이었다.

《아이, 모자라네!》

《동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와 말해야 알게 아니니?》

《저 엄마, 이번 달 용돈을 먼저 줄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기에? 너 나쁜 일을 저지른건 아니지? 이 에미를 속여선 안된다...》

동수는 안타까와 가슴 뜯는 엄마한테 말하려고 하다가 또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말해서는 안된다. 앓는 엄마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가? 차라리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 동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로 작심하였다. 엄마를 놀래울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억울한 정철형님만은 어떻게 하나 구원해 내야 한

다.

《엄마 돈 19원70전만 주세요. 절대 나쁜데 쓰지 않을게요.》

《그럼 학교 축구팀에서 거두는거니?》

《예...》

엄마는 그새 돈지갑에서 20원짜리 돈을 벌써 꺼내여 동수 손에 꼬옥 쥐여 주었다.

《엄마, 고마와요.》

동수는 눈물을 머금고 꾸뻑 엄마한테 경례까지 하였다. 동수는 엄마한테 난생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자기가 이렇게 미울 줄은 정말 몰랐다.

5

동수는 그 길로 리발관집에 뛰여 들었다. 의자에 앉아 꼬떡꼬떡 졸고있던 리발관집 아줌마가 인기척이 나니 발딱 일어났다.

《오, 머리 깎젠?》

《아니요.》

《그럼?》

《할 말이 있어 왔습다.》

감실감실한 얼굴에 또릿또릿한 감장눈이 리발관집 아줌마를 쏘아보고있다. 어찌면 그 잘난 네온등 때문에 정철형님을 벌금 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경고처분까지 준단 말인가?

《아줌마, 정철형님이 네온등 켜져 아니예요!》

《영? 너... 너... 어떻게 알어?》

《난 안다구요!》

《그... 그럼... 누... 누가 켜어? 붙잡기만 해보지. 죽여 치우겠어!》

동수는 금시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고중가기도 힘들게 된 정철형님의 전도를 위하여서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줌마,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어서 말해.》

여기까지 이른 동수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가 나고 더 대답해졌다.

《아줌마, 내가 네온등 켜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한가지 약속을 할게 있어요.》

《애, 무슨 조건이 그리두 많아?》

《내가 알려주면 그 즉시로 아줌마는 우리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찾아 가야 돼요!》

《내가?》

《그래요. 그러잖으면 난 알려 안 줄텐다.》

동수는 강경하게 나왔다. 억울한 정철형님을 위하여서는 리발관집 아줌마를 단단히 잡죄려고 든 동수이다.

《그...그래. 약속할게.》

《정말임까?》

《그래, 그래 정말이지.》

그래도 동수는 미심쩍어 리발관집 아줌마를 올리 내리 훑어 보기만 하였다. 아무리 보아도 변덕스러운 아줌마다. 만약 동수가 먼저 말해 줬다가 이 아줌마가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되지!

동수는 리발관집 《의견부》에서 종이 한 장을 쪽 찢어 가지고 아줌마한테 내밀었다.

《이 종이에 각서를 써주세요. 교장선생님을 찾아 가서 <정철형님이 네온등을 깨지 않은걸 증명하겠다>구 말임다.》

《애두, 무슨게 이리 복잡하냐?》

《안 쓰면 난 몰라요!》

《그래, 그래, 내 쓸게.》

리발관집 아줌마는 뽀뽀글글 글자를 써 내려갔다. 동수는 어쩐지 웃음이 나갔다. 그렇게 사납던 리발관집 아줌마도 동수 앞에서 이렇게 찢찢매는걸 보니 이제 욕을 먹어도 아니, 얻어맞아도 꼬물도 대수롭지가 않았다.

《여기 아줌마 이름두요!》

《그래, 쓰마. 쓰지.》

리발관집 아줌마는 자기 이름까지 쓰고 이마에 뚫은 구슬땀을 훔치며 말했다.

《이만 하면 됐지? 어서 말해? 누가 줬나?》

동수는 리발관집 아줌마가 쓴 각서를 한번 쭈욱 훑어 보고 네모 반듯하게 접어서 영당이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태연하게 돈 40원을 꺼내 리발관집 아줌마한테 내밀었다.

《엥? 이게 무슨 돈?》

《네온등값임다!》

《네온등값?》

리발관집 아줌마는 그래도 돈부터 호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전 리동숨다.》

《리동수?》

《예, 그리구 림해학교 5학년 1반이구요.》

《...?》

리발관집 아줌마는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 이때 동수가 랭정하게 입을 열었다.

《네온등은 제가... 제가 짬슴다!》

《뭐... 뭐... 뭐라구?》

《일부러 깐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짬슴다.》

《아... 나아... 뽀... 노... 음...!》

두눈을 치뜨며 소리치던 리발관집 아줌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썩그르르 의자에 무너져내렸다.

《어서 나... 나가, 썩 나가!》

《안됨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야 함다!》

동수는 리발관집 아줌마를 부축하여 일귀 세웠다. 그리고 약속대로 리발관집 아줌마를 앞세우고 동수는 림해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떠났다.

이렇게 되어 수수께끼같던 《네온등사건》은 기본상 끝난 셈이다. 그러나 정철형님의 억울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